

# 차기 보험개발원장 후보군 압축 유재훈·신현준·안철경 '3파전'

유, 시장 두루 경험 '정통 금융관료' 신, 금융권 신용정보 등 경험 강점 안, 보험연구원장 지낸 '보험통' 금감원 출신 인사 슛리스트 제외



유재훈 전 금융위 국장



신현준 전 신용정보위원장



안철경 전 보험연구원장

차기 보험개발원장 후보군이 유재훈 전 금융위원회 국장, 신현준 전 한국신용정보원장, 안철경 전 보험연구원장 등 3명으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허창언 원장이 금융감독원 보험담당 임원 출신인 가운데 이번 슛리스트에서는 금감원 출신 인사 제외되면서 보험 유관기관 인사 기류가 달라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 원장후보추천위원회는 최근 차기 원장 후보군을 3명으로 추렸다. 후보군에는 유 전 국장, 신 전 원장, 안 전 원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보험개발원은 지난달 17일 차기 원장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이후 지원자 심사와 후보군 압축 절차를 거쳐 최종 후보 선임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차기 원장은 원장후보추천위원회 심사와 내부 의사 결정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요율 산출과 검증, 보험통계 관리, 상품·제도 연구, 자동차 기술연구소 운영 등을 맡고 있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를 회원사로 둔 만큼 원장 인선은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을 잇

는 조율 능력, 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데이터·요율 전문성을 함께 평가받는 자리로 꼽힌다.

후보군의 색깔은 뚜렷하게 갈린다. 유 전 국장은 금융위원회에서 자본시장, 기업구조조정, 금융혁신, 금융소비자보호 분야를 두루 경험한 정통 금융관료 출신이다. 성남고와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나왔다. 용문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신 전 원장은 금융권 신용정보와 데이터 인프라 분야 경험이 강점으로 거론된다. 안 전 원장은 보험연구원장을 지낸 보험연구·제도 전문가다. 안 전 원장은 휘문고와 연세대를 졸업했다. 보험연구원에서 연구조정실장, 기획행정실장, 부원장 등을 지낸 후 2019년 원장 자리에 올랐다.

이번 인선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금감원 출신이 슛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금감원 보험감독국장과 보험 담당 부원

장을 지낸 금감원 보험 라인 출신이다. 이 때문에 차기 원장 인선에서도 금감원 출신 인사들이 후보군으로 거론됐지만, 결과적으로 슛리스트 진입에는 실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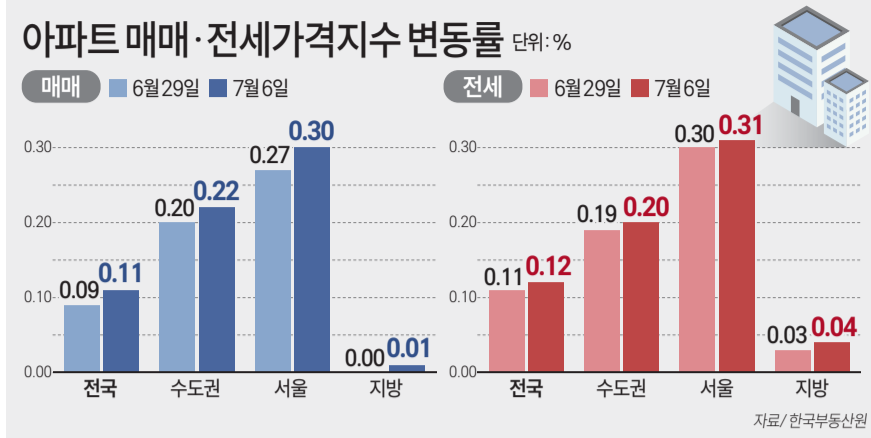
보험업계 안팎에서는 금감원 출신이면 유리하다는 기존 유관기관 인사 공식이 이번에는 통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험개발원장은 당국과 업계를 모두 이해해야 하는 자리지만, 최근에는 감독 경험뿐 아니라 보험 데이터, 요율 산출, 통계 관리, 제도 연구 역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슛리스트가 정책·정보·연구 분야 인사들로 채워진 것도 이 같은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금감원 출신 인사가 슛리스트에 오르지 못한 것은 보험 유관기관 인선에서 감독당국 경력의 인사 프리미엄이 예전 같지 않다는 신호로도 읽힌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 상승폭 더 확대

주간 매매지수 0.11%, 전세 0.12% ↑ 서울 아파트 0.30% 올라 상승폭 확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 상승세가 더 가팔라졌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고강도 규제가 이어지고 있지만 집값은 물론 임대차 시장도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다.

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첫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은 지난 6일 기준 매매가격지수는 0.11%, 전세가격지수는 0.12%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0.30% 올라 전주(0.27%) 대비 상승폭을 확대했다.

부동산원은 "일부 지역에서 시장참여자들의 관망세가 존재하지만 개발 기대감 있는 단지와 정주여건 양호한 역세권·

대단지 중심으로 수요가 꾸준해 서울 전세가 올랐다"고 설명했다.

강북에서는 성북구가 0.51%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다. 중랑구(0.39%)는 신내면 목동 역세권 위주로, 광진구(0.38%)는 구의·자양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에서는 송파구(0.34%)는 잠실·가락동 대단지 위주로, 강동구(0.34%)는 명일·암사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올랐다.

경기 역시 0.23% 올라 전주(0.19%)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특히 지난달 30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동탄구, 기흥구, 구리시는 강세가 이어졌다.

동탄구는 1.29% 올라 연초 이후 누적 상승률만 15%에 달했다. 기흥구와 구리시도 각각 0.56%, 0.6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상미 기자 smahnl@

##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상생 대출' 추진

금융위 '포용적 금융 대전환' 기존보다 금리 0.03%p 인하

금융당국이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존 대출보다 금리가 최소 0.3%포인트(p) 낮은 지방은행·인터넷은행 공동대출을 추진한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9일 전북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서 '제6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겸 지역금융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우선 금융위는 지방은행·인터넷은행 중소기업·개인사업자 공동대출을 추진한다.

중소기업·개인사업자 공동대출은 인터넷은행의 비대면 채널(앱)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대출 고객을 모집하고,

지방은행과 인터넷 은행이 심사와 자금 공급을 분담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상품이다.

우체국에서도 금융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은행대리업을 시범 운영한다. 금융위는 은행정보 비중, 인구소멸지역 여부를 고려해 고성·창녕·하동(경남), 청양·태안·단양·괴산(충청), 구례·담양·영광·함평(전남), 봉화·청도·성주(경북), 임실·순창·고창(전북), 평창·화천·횡성(강원) 지역의 총괄우체국에서 은행대리업을 시범 운영키로 했다.

은행대리업에서 취급되는 대출상품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의 개인신용대출상품과 은행권 정책서민금융 상품(희망씨)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 은행 가계대출 7.6조 ↑... 두달 연속 급증

한은, 6월 금융시장 동향 주택거래 증가·주식투자 확대 영향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7조원 넘게 늘며 두 달 연속 큰 폭 증가했다. 수도권 주택거래 증가로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커진 데다 주식투자 확대 영향으로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크게 늘었다.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6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7조6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5월 6조9000억원 증가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 6월 증가폭(6조2000억원)보다 컸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6월 말 기준 1189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출 증가세는 주택담보대출이 이끌었다. 6월 주택담보대출은 4조3000억원 늘어 전월 증가폭 3조2000억원보다 확대됐

다. 전세자금대출은 7000억원 줄며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4~5월 수도권 주택거래량 증가와 기존 분양물량의 중도금 납부 수요가 주담대 증가폭을 키웠다.

기타대출도 3조3000억원 증가했다. 전월 3조7000억원보다는 증가폭이 줄었지만 분기 말 부실채권 매·상각에도 상당폭 늘었다. 한은은 개인의 주식투자 확대 영향으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기타대출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도 가계 자금 흐름에 영향을 미쳤다. 코스피는 반도체 경기 호황과 미국·이란 종전 기대 등으로 지난달 22일 9114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후 주요국 통화정책 불확실성과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 등으로 조정을 받았다. 외국인은 5월 국내 주식을 48조9000억원 순매도한 데 이어 6월에도 57조5000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금리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국내외 인플레이션 우려와 기준금리 인상 기대 등으로 지난달 8일 연 3.94%까지 오르며 연중 고점을 기록했다. 이후 미국·이란 종전 잠정 합의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 등을 반영해 상승폭을 일부 줄였다.

기업대출 증가폭은 축소됐다. 6월 은행 기업대출은 5조1000억원 늘어 전월 10조6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줄었다. 중소기업대출은 부실채권 매·상각과 일부 특수은행의 대출공급 감소 등으로 증가폭이 5조4000억원에서 1조7000억원으로 축소됐다.

대기업대출은 3조4000억원 증가했다. 반기 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일시 상환에도 은행들의 대출영업 지속과 회사채 상환자금 등 운전자금 수요가 맞물리면 서 상당폭 증가했다. /김주형 기자

## '2026 건설의 날' 유공자 107명 포상

국토부, 건설인들 노고 격려

국토교통부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와 건설회관에서 '2026 건설의 날' 기념식을 연다고 9일 밝혔다. 건설의 날 기념식은 건설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건설산업의 제도약을 다짐하기 위해 1981년 시작됐다. 올해로 36회째를 맞는다.

올해 기념식의 주제는 '미래를 짓는 K

-건설'이다. 인공지능(AI)이 모든 전 산업에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건설산업도 AI 기술을 통해 미래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기념식에는 한성숙 국무총리, 김문덕 국토부 장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등 국회의원 20여명, 한승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윤희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등 건설 관련 단체장과 정부 포

상 수상자 가족 등 700여명이 참석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총 107점의 포상이 수여된다. 금탑산업훈장은 40년간 주요 국책사업을 수행하고 기계설비 분야 발전에 공헌한 조인호 해광이앤씨 대표이사 가 받는다.

은탑산업훈장은 최상대 대도토건 대표이사 최길학 사립종합건설 대표이사에 수여된다. 동탑산업훈장은 정홍수 영산종합건설 대표이사 최이철 선진에이엔에프 대표이사가 받는다. /성채리 수습기자 cr56@

## 하나금융 '청라 그룹헤드쿼터' 9월 운영

10개 계열사 직원 2200명 이전 총 4000여명 금융인력 근무

하나금융그룹이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조성한 '청라 그룹헤드쿼터(HQ)'를 오는 9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 등 10개 계열사 직원 약 2200명이 순차적으로 이전하면서 청라에는 총 4000여명의 금융 인력이 근무하게 된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5월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위치한 청라 그룹헤드쿼터 준공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청라 그룹헤드쿼터는 지하 7층~지상 15층, 연면적 12만8503㎡ 규모다.

오는 9월부터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을 비롯해 하나증권, 하나카드, 하나캐피탈, 하나생명, 하나저축은행, 하나펀드 서비스, 하나에프앤아이, 하나금융티아 이 등 10개 계열사 직원 약 2200명이 단계



청라 그룹헤드쿼터(HQ). /하나금융그룹

적으로 입주할 예정이다.

기존 청라 통합데이터센터와 하나글로벌 발캠퍼스에서 근무 중인 직원까지 포함하면 청라에서 근무하는 하나금융그룹 임직원은 약 4000명 규모로 늘어난다.

이번 이전으로 하나금융그룹은 2017년 통합데이터센터, 2019년 하나글로벌 발캠퍼스에 이어 그룹헤드쿼터까지 구축하며 청라 하나드림타운 조성 사업을 마무리하게 됐다. /나유리 기자